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도

7호

2024.05.30(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7차 지부교섭 : 사측 1차 제시안 제출]

알맹이 없는 1차 제시안!

핵심 내용은 전부 빠진 채 일부 내용만 제시



뜸성뜸성 구멍난 초라한 제시안

5월 30일(목)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7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사측의 첫 제시안이 나왔지만 여기저기 구멍 나있는 성의없는 내용이 제출됐다. 추후 제시하겠다는 뜻인지 아예 제시안을 낼 생각이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을만큼 텅텅 비어있는 내용이었다.

임금인상 포함해서 다시 제시하라

금속노조는 각 교섭단위에서 임금인상 논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권현구 지부장은 “아무리 1차 제시안이라지만 사측이 성의없다고 생각한다. 차기교섭부터는 임금인상 포함해서 논의할만한

수준의 제시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부교섭 참가 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임금인상안도 지부교섭에서 논의하게 된다.

2주동안 심도있게 논의해라

다음주 목요일은 현충일인 관계로 지부교섭이 열리지 않는다. 차기 교섭까지 2주의 시간이 있다. 예년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이 논의했던 것에 비해 첫 제시안은 너무 초라했다. 앞으로 2주 동안 심도있게 논의해서 차기교섭에서는 진정성있는 제시안이 나와야 한다.

* 차기교섭 : 6/13(목) 14:30 지부 대회의실

7차 교섭 속기록

2주 시간 주겠다

노 : 사측 교섭위원들이 매주 한 명씩 빠진다. 다음 주 교섭은 빠짐없이 참석해달라. 한국 필수생계비 비율이 소득의 38%로 사상 최대치라고 한다. 먹고 입고 자는데 돈을 안 쓸 수도 없고 어렵다. 정부가 반도체 지원에 26조 투입한다고 한다. 지난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안정자금 13조 풀자고 했던 것도 생각한다. 포퓰리즘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13조면 국민 1인당 25만원이라는데 반도체 지원금 26조면 국민 1인당 50만원 수준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우선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 민생과 노동자 생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교섭하면 좋겠다.

사 : 연일 더운 날씨에도 노사가 서로 업무에 매진해서 성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바쁜 가운데 교섭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시다. 앞으로도 노사 협력하여 좋은 결과 내길 바란다.

〈사측 1차 제시안 제출〉

노 : 임금 제시안에 ‘임금협의 완료 후에 제출’ 이 무슨 뜻인가? 임금안도 지부교섭에서 제출해야 한다. 사전에 지회와 협의하라는 것 아니다.

사 : 지부에서 임금 내려주기 전이라 공동안을 내야 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노 : 안전보건확보의무, 통일요구안 등에 오늘 제출안 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다는 것인가?

사 : 추후 검토해서 제출하겠다. 내용이 광범위해서 1차 제시안에서는 일부만 제출했다. 통일요구안도 추후 제시하겠다.

노 : 우리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건 다 비껴가고 있다. 정회해서 논의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1차 제시안 제출하긴 했는데 노측 교섭위원들이 검토할만

한 내용을 갖고 왔어야 한다. 임금인상은 다루라고 지침이 내려왔다. 각 사업장별로 임금도 제시해라. 다음 주는 현충일이라 지부교섭 안할텐데 2주 시간이 있으니 6월 13일에는 임금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는 제시안 제출해달라.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에 대해서 아예 내용이 없는건 의도가 있는건가?

사 : 아니다. 추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노 : 지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금속산업최저임금은 작년에 불승인될 내용이었던 것이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부교섭 때마다 누차 말하는데 중앙교섭 신경쓰지말고 진행하자는 것이다. 지부교섭에서 더 좋은 내용이 나와서 중앙교섭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중앙교섭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진정된 제시안 제출해달라. 또 특정 사업장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지부교섭 사업장 중에도 노사관계가 갈등적으로 가고 있는 곳이 5~6곳 있다. 그동안은 지부교섭 사업장은 지부교섭 틀거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해왔는데 올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 사업장 노사관계 관리도 잘 해라. 지부 전체 투쟁이 그 곳으로 집중될 수 있다. 여기 교섭위원들이 잘해야 한다.

질문 하나 있다. 제시안 내용 중에 산보위에서 심의 협의 하자고 제출했는데, 산안법에 산보위가 심의 의결기구 아닌가? 법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시안에 낸 이유가 뭔가?

사 : 처음 제출한 제시안이다. 첫 내용에 너무 목매지 말았으면 한다.

노 : 아무리 1차 제시안이지만 사측이 성의없다고 생각한다. 2주 시간 드릴테니 성실히 준비하셔라.